

보도시점 2026. 9. 2.(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9. 1.(화)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민관 업무협약

- 기후에너지환경부·중기중앙회 및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디비(DB)손해보험과 9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환경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디비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서 5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중앙회는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선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식 및 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이준한 (044-201-6811)



□ 행사 개요

- (목적)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역할 분담 등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 (일시) '26.9.3 (목) 11:30~12: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혁신룸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참석) 기후부 환경보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 DB손해보험 법인사업부문장 등
- (내용) 협약서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 기관별 역할 >

- (기후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사항 검토·조정 및 행정 지원
- (중기중앙회) 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무 수행
- (DB손보) 사업지원자금(5억원) 출연 및 보험가입 정보 제공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 (대상) '26년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 가입기간 중 환경책임보험 사고 접수 이력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 신청 업체 중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고려하여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금액 결정

- (금액) 연간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천만원)
- (방식) 지원액을 해당 사업자 계좌로 송금(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